

금융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전주매일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음 11월 21일) 제21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 금융타운 조성 촉매제
국가금융산업 발전 · 지역균형발전 효과 기대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둔 전북은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가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예상된다.

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발의된 이 법은 지난해 6월 발의한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전북도와 연금공단, 김광수 국회의원의 논리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 의원의 마음을 돌려 가까스로 보건복지위를 통과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기관 신설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법 통과가 불발되며 법안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은 역할담을 통해 여야 지역 연고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교육부 기재부 등 부처 반대연선에 대한 치밀한 논리보강을 통해 부처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모았다.

특히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도 지회부는 청와대 사회수석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법 개정 취지와 당위성을 역설하며, 교육부와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끝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현재 650조원인 국민연금기금은 5년 후면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해외투자와 부동산, 인프라 등 투자처를 다각화하며 세계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금 시장 규모는 1,000조원을 넘고 있지만 국내 자산운용 전문인력은 시장 수요에 못 미치고 있어, 자산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하여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금운용분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분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여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에 금융인재 양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함께 힘을 모아... 남북 철도 · 도로연결 착공식



26일 오전 개성 판문역에서 진행된 '동·서해선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계도 체결식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전주시, 정부혁신평가 '우수' 폭염 · 한파 자연재난에 포함

실행계획 충실성 · 혁신추진 체계 등 전체 지표서 고른 점수
사회적 가치 실현 · 넓은 관행 혁신 명품도시 구축 등 '결실'

전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정부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으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방식은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실행계획의 충실성, 혁신 추진 기반)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인권개선, 장애인 고용노력)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주민참여 확대, 협업문화조성, 공공자원개방, 공공데이터, 정보공개) △넓은 관행을 혁신하는 신뢰받는 정부(청렴도, 일하는 방식 혁신, ICT활용 공공서비스혁신) △기관 대표 혁신 사례 등 5개 항목 11개 정량 · 정성평가 지표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 전주시는 실행계획 충실

성 및 혁신추진 체계 등 전체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62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포함됐다.

앞서, 시는 올 한해 2018년도 정부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가장 인간적인 도시 전주를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참여와 협력을 할 일을 하는 전주시정 구현 △넓은 관행을 혁신하여 신뢰받는 명품도시 구축 등 3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수립하고 적극 실행해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2018년도 정부혁신 우수기관 선정은 그 동안 혁신 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전주시가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정책과정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
올해 7월부터 소급 적용

자연재난에 폭염 · 한파가 추가되어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부터 재난지원금이 소급 지급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폭염 및 한파가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8년 9월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올해 7~8월 폭염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사망이나 부상 등 인명피해는 시 · 군에 피해신고를 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8년 기록적인 폭염 발생으로 온열질환자는 전국적으로 작년 대비 2.9배 증가된 4,526명이 발생했고 이중 48명이 사망했다. 전북의 경우 23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5명이 사망판정을 받았다.

농작물에 대한 폭염 · 한파 피해는 2011년 농업협약대책법 개정으로 그동안 정부지원이 이루어져 왔으며, 올해의 경우 폭염으로 인삼 · 두류 등 농작물 4,691.8ha가 피해를 입었고, 가축은 닭 · 오리 등 2,299천마리가 폐사되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폭염이나 한파로 인한 피해발생 신고절차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 또는 시 · 군 · 구청에 피해신고를 하면 시 · 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피해조사 등을 통해 인명피해 여부를 확정해 지원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도내 5개 시군 한파주의보

전주기상지청은 26일 오후 11시를 기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등 5개 지역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갈 때 내려진다.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김석훈 기자

매일 INDEX

4면 - 전주시 내년 살림살이 확정

16면 - 군산시의회 의정 결산

『2019년 제5회 전국 스키·스노우보드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

『의암송』